

중장비 연료로 등유 공급하다 적발

주유소 관계자 2명 조사 ... 경유용 굴착기·덤프트럭에 15만리터 공급

전라남도 모 주유소 관계자들이 경유용 중장비에 등유를 공급하다 적발됐다.

장성경찰서는 6월2일 경유를 사용하도록 한 중장비에 등유를 공급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박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씨 등은 4-5월 장성과 함평의 골재 채취장과 공사 현장 등을 돌며 경유를 써야 하는 굴착기, 덤프트럭 등에 등유 15만리터(1억5000만원 상당)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형 중장비는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지만 구형은 등유를 넣어도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어 연료비를 아끼려고 등유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등유를 구입한 사람들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지만 박씨 등이 이를 알면서도 공급했고, 탱크로리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중장비에 주유한 점 등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02>